

LCD패널, 8월부터 가격안정 전망

하나증권, 타이완 CMO 10% 감산 돌입 ... AUO · LG디스플레이도 동참

하나대투증권은 7월17일 액정표시장치(LCD)업종에 대해 타이완 CMO와 경쟁기업들의 감산으로 패널 가격이 8월부터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했다.

또 패널 생산기업 LG디스플레이와 부품 생산기업 에이스디지텍, 금호전기, 한솔LCD, 신성델타테크, 우주일렉트로닉스를 업종 최선호주(톱픽)로 추천했다.

이정 애널리스트는 “CMO가 8월부터 모듈 10% 감산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어 IT용 패널 가격 급락으로 AUO나 LG디스플레이 등 다른 경쟁기업들도 감산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”며 “패널 생산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대응으로 8월부터 패널가격이 안정될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

또 “최근 LCD 패널 및 부품기업들의 주가가 양호한 영업실적에도 LCD산업의 하강국면 진입에 대한 우려와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, 6-7월 IT용 패널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과거 밸류에이션의 최하단에 와 있다”며 “단기적인 영업실적 모멘텀 약화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LCD산업에 대한 재평가와 밸류에이션 매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”고 설명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7/17>